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18학번 공용권입니다.

저는 이번 2024년 상반기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 공정기술이 통합된 **삼성전자 제조&기술담당 공정기술** 직무에 합격 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번의 삼성전자 면접 탈락 후 3번째 도전을 통해 이번에 최종합격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 제 글을 읽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스펙

1) 학점

전체 학점 - 4.33, 전공 학점 - 4.45

요즘 **학점보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점이 높다면 취업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4-1에 진행하는 삼성전자 인턴 서류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점이 매우 유리한 경쟁력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경험을 챙기고 여유가 된다면 높은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어학성적

토익 스피킹 IH(150점)

저는 3-1 여름방학 때, 어학성적을 취득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오픽을 취득**하는 것이 좋지만, **가성비로 봤을 때 토익 스피킹**이 취득하기 쉬워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내외 활동 및 자격증

에너지환경 재료 학부연구생 10개월 (김혜경 교수님) - 3학년

아르바이트 (2개월, 2개월, 2개월) - 방학

교내 동아리 (볼링 동아리) - 1학년 2학기

교내 반도체 교육

교내 파이썬 기초 교육

6-sigma GB 자격증

컴활 1급 자격증

1. 개인적으로 **학부연구생**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 자소서, 면접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학부연구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인턴, 현장실습**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경험 쌓을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찾아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2. **장기간의 활동** 또한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점만 높다면,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면접 스터디를 함께한 합격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꾸준하게**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단체활동 등을 진행하신 분들이 확실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취업 확률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회성을 입증하기에도 좋지 때문에 꾸준히 무엇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취업과정

1) 자소서

사실 저는 자소서를 잘 쓰지 못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1 삼성전자 인턴 공고가 뜨고 인생 처음으로 자소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막막해서 학기별로 제가 한 경험을 정리하여 **취업처 - 취업상담**을 이용하여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아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소 꾸준히 **경험정리**를 통해서 자소서 소재를 찾고, 여러 번 도움을 받아가며 자신만의 자소서 틀을 만들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인적성(GSAT, 그 외)

1. 지사트 같은 경우 **사람마다 정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사트를 처음 준비하여 자신의 실력을 모른다면 서류 한 달 전부터 체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렛유인 단기독학이라는 책으로 독학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제 문제만 N회독**하여 각각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기초를 다졌습니다.

서류 결과가 나왔다면 책에 있는 **모의고사**를 다 풀고, 해커스 파랑이, 하양이, 기출 모의고사 등 다양한 모의고사를 하루에 1개, 시험 일주일 전부터 2개씩 매일 꾸준히 풀었습니다.

물서류라면 불사트입니다. 작년 파운드리 공정기술은 약 35개쯤이었지만, 이번 제기담 공정기술 지사트 커트라인은 40개였습니다. **최소 목표로 40개**는 맞춘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하셔서 통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사트 외에도 SKCT, 인성검사 등 다양한 회사에서 인적성 평가가 존재합니다. 특히, 저는 **인성**

검사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MBTI I입니다. 인성검사 같은 경우 거짓말로 체크하면 티나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I성향을 솔직히 체크했었습니다. (ex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X, 휴일에 집에서 쉬는 것을 선호한다 O, 내 일 열정적으로 하기 - 1순위, 동료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챙기기 2순위, 도전하기 - 3순위 등등) 그러나 제가 지원한 공정기술, CS엔지니어 등은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교류, 상대하는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E 가면을 쓰고 일관성 있게 본인의 일에 열중하는 것보다 동료와의 관계에 중점을 뒀 체크하여 SKCT와 타 회사의 인성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체크하고 면접에서 방어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한 직무라면 **취업준비 기간 동안만이라도 활발한 성격인 척**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면접

23년 상반기 (4-1) 삼성전자 메모리 공정기술 인턴 면접 탈락

23년 하반기 (4-2)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기술 면접 탈락

24년 상반기 SK실트론 Wafering 엔지니어 면접 탈락

24년 상반기 심텍 품질관리 면접 탈락

24년 상반기 ASML CS엔지니어 면접 탈락

24년 상반기 삼성전자 제조&기술담당 면접 합격

저는 여러 번의 면접 탈락 후 이번에 최종합격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무엇보다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 친구, 후배들에게 본인이 말을 정말 잘하는 거 아니면 **면접 스테디**를 통해 연습을 하라고 추천해줬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선배님들의 취업 후기에서 면접 스테디를 추천해줬을 때 별 다른 생각 없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턴 면접에서 정말 탈탈 털리고, 머리 속이 백지가 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4학년 여름방학에 면접 스테디에 가입하여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 문제점을 피드백 받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미리 받아보며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기습 질문에도 잘 방어하고 대처하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 비꼬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에도 대든다는 것보단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대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명확하게 큰 목소리로 답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면접관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면접관님은 말대꾸하는 것을 매우 안 좋아하십니다. 면접관님이 오해하신 상황이나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면접관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으로 먼저 **면접관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좋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왜 내가 이 직무인지?

제가 품질이나 CS엔지니어 면접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공정기술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공정기술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왜 신소재인데 소자쪽이 아니라 CS인지?", "품질 직무를 위해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했는지? 공정쪽이 더 맞지 않은지?" 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했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무를 정했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직무를 선택했고, 그 직무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전공이 조금 맞지 않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기본기를 탄탄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Pt면접**이 부활했습니다. 그 전엔 단순히 구두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칠판에 그림이나 키워드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 현직자도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으나, 그런 문제의 경우 지원자 대부분이 못 풀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대 공정이 있다면 각 과마다 주력하는 공정이 다를 것입니다. 저희 신소재 같은 경우 증착 공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지, 원리와 정의, 장단점 차이, 최근 이슈 등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도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증착 공정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니 전반적으로 모든 공정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반도체 공정 전공 수업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 "렛유인 반도체 면접책 기출편"을 구매하여 공정부분을 공부했고, 그 이후 "뚝뚝's 반도체사관학교"를 통해 심화 공정을 공부했습니다.

5. 긴장을 많이 한다면 인데놀 or 청심환

저는 면접 대기 시간에는 괜찮은데 면접장 안에 들어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는 병원에서 면접을 위해 인데놀을 처방 받아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제 기준 인데놀을 먹으면 심장이 덜 뛰어 차분해 저서 면접을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먹고 본인 몸에 맞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데놀은 **긴장을 완화**해주는 것이지 면접 답변을 대신 생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 안 한 감자가 되지 않게 면접 준비도 꾸준히 하세요.

3. 마무리

1. **취업 시장은 차갑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대기업만 노린 것이 아니라 여러 중견 기업에도 지원하며 중고신입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학점과 괜찮은 경험이 있었지만 서류 합격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분들도 바로 대기를 가는 것도 좋겠지만, 눈을 좀 낮추고 넓게 바라봐서 경험을 쌓아 중고신입을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영어를 못해서 외국계 반도체 장비회사에 지원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영어를 못해서 4-2에 외국계 기업엔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어학 성적을 따기 위해 연습하는 것처럼 준비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영어가 두려워도 일단 도전하세요.**

3. **취업은 운입니다.** 저와 잘 맞는 면접관을 만날 수도 있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면접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제 부족한 부분을 찾되,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며 너무 슬퍼하지 않고 또 도전하세요. 딱 하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쓸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두렵더라도 일단 취업상담, 스터디 다 신청해보세요. 취업은 누가 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 외에 삼성전자 인턴, 공채, 탈락한 타 회사 면접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gyg6992**로 연락주세요. (현재 교육 중이라 답장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를 함께한 동기들, 도움과 응원을 주신 선, 후배님 그리고 류정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